



제목	페르시아 전쟁: 최초의 동서양 문명 충돌, 지금 의 세계를 만들다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책과함께
발행일	2006. 12. 9.
저자	툼 홀랜드 이순호 옮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643
ISBN 또는 ISSN	978-8991221215

내용 요약

이 책은 헤로도토스의 글 이후 지나치게 그리스 편에 치우친 페르시아 전쟁의 이야기를 페르시아 편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글이다. 페르시아 전쟁이 지닌 모든 중요성, 스케일, 극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디테일한 재구성이 가능한 역사상 최초의 전쟁이지만 헤로도토스가 전쟁의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도토스가 밟은 길을 따라 페르시아 전쟁에 관련된 모든 세계, 동서양의 일대 파노라마를 그려보려는 것”이 저자의 의도이다.

1장 “호라산 하이웨이”에서는 아시리아, 메디아, 리디아 등 중동 지역의 상황에 대해 서술하였다. 2장 “바빌론”에서는 바빌로니아의 팽창, 539년 키루스의 바빌론 장악과 지배의 정당화 과정, 다리우스가 페르시아의 왕, 바빌론의 왕, 아카드의 왕으로서 통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3장 “스파르타”에서는 스파르타의 지형, 인종, 정치, 사회에 대해 설명하였다. 4장 “아테네”에서는 솔론 개혁,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을 서술하였다. 5장 “페르시아 대왕의 수염을 불태우며”는 이오니아의 반란 과정에서 다리우스의 위협에 대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대응, 아토스 반도에서의 전투, 마라톤 전투 과정을 기록하였다. 6장 “질어가는 전운”에서는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 대비 과정, 테미스토클레스의 부상에 관해 설명하였다. 7장 “만에서”는 테르모필라이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 대해, 8장 “네메시스”는 플라타이아 전투와 전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